

## ■ EU 각료들, 지표권 오존 규제안 도출

○ 지난 10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환경각료 회의에서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지표권 오존오염<sup>1)</sup> 저감안을 완화하는데 합의함

- 합의안에서는 2010년까지 대기환경에서 오존의 농도가  $120 \mu\text{g}/\text{m}^3$ 를 초과하는 일수가 연간 25일 미만인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
- 당초 20일 미만으로 제안했던 집행위원회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별 오염물질 배출제한량이 지난 6월 계획보다 작게 합의되었기 때문에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된 상황에서 동의할 수 있는 차선택이라고 환영함
- 환경론자들도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등이 기준 초과일수 상한을 40일로 주장해왔기<sup>2)</sup> 때문에 비교적 만족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함

○ 보다 강화된 안을 지지했던 유럽의회는 규제안의 실행을 위해서 구속력이 있는 목표치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유럽의회는 오존 기준 초과일수를 20일 미만으로 해야 할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는 단 하루도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안을 제안했었음
- 하지만 각료회의와 유럽집행위원회는 이 제안을 거부하였으며 각료회의를 통과한 지침안이 합의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고 주장함
- 앞으로 각료회의 통과안을 의회에서 토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이나 집행위원회의 동의에 따라 각료회의 안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 내연기관을 장착한 제품에 대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규제가 강화될 것이므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함

- EU로 수출되는 자동차, 중장비, 선박 등의 경우에는 엔진 효율을 높이거나 오염물 배출 저감장치 개발이 요구됨
  - 대기환경규제 기준에 따른 배출기준의 제정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함
- 기 준 학(02-3669-4097, hiemjhki@shinbiro.com)

1) 연료 연소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나 휘발성유기화합물과 같은 전구물질이 햇빛과 반응하여 지표권의 오존 발생량이 높아지면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아지고 식물의 성장 역시 저해시킴

2) 이들 국가들은 유럽 남부지방에 위치해 오존오염을 일으키는 일조량이 북쪽에 위치한 국가들에 비해 높아 오존 상한을 지키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해 왔음